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국내 단기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국공채, 통안채, 특수채 등의 국내 채권 중심으로 운용하며, 나머지 3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으로 다양한 자산에도 투자합니다.
- 채권투자전략: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80%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국내 채권 전략과 별도로 운용되는 전략이며 금리 움직임에 따라 장기국채 및 장기국채선물(10년)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 펀드의 채권 평균 듀레이션은 1년 ± 1년 수준에서 운용될 예정
- 주식투자전략: 주가지수(KOSPI200) 움직임에 따라 주식관련 상품(집합투자증권 또는 선물)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
- 외환투자전략: 환율 움직임에 따라 달러 및 외화표시채권 등 매매를 통해 수익을 추구

투자전략 및 운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파생상품 등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8억 원

펀드유형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중류형

설정일

(운용펀드 : 2020년 01월 28일)

- 클래스 A : 2020년 01월 30일
- 클래스 A-E : 2020년 02월 11일
- 클래스 C : 2020년 01월 30일
- 클래스 C-E : 2020년 03월 18일
- 클래스 C-F : 2020년 01월 28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20년 09월 01일
- 클래스 S : 2021년 03월 17일
- 클래스 S-P2(연금저축) : 2021년 03월 17일

벤치마크 CD금리(3개월물)+0.4%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4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5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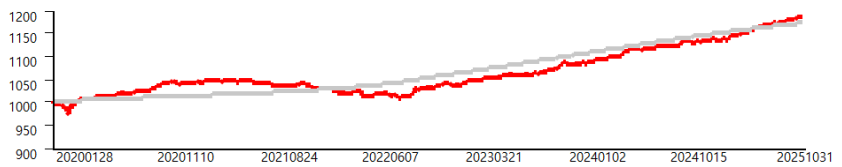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0.74%	1.42%	3.32%	5.65%	11.59%	16.76%	15.99%	18.55%
클래스 A	0.69%	1.28%	3.02%	5.04%	10.31%	14.76%	12.68%	14.67%
클래스 A-E	0.70%	1.31%	3.09%	5.17%	10.59%	15.20%	13.40%	16.26%
클래스 C	0.66%	1.20%	2.86%	4.71%	9.61%	13.67%	10.90%	12.60%
클래스 C-E	0.69%	1.27%	3.02%	5.03%	10.30%	14.74%	12.57%	17.21%
클래스 C-F	0.70%	1.33%	3.13%	5.26%	10.77%	15.48%	13.86%	16.06%
클래스 C-P(퇴직연금)	0.67%	1.22%	2.92%	4.82%	9.85%	14.04%	11.51%	11.92%
클래스 S	0.71%	1.44%	3.29%	5.55%	11.36%	-	-	12.92%
클래스 S-P2(연금저축)	0.71%	1.44%	3.29%	5.55%	11.36%	-	-	12.92%
벤치마크	0.25%	0.74%	1.50%	3.26%	7.52%	12.06%	16.13%	1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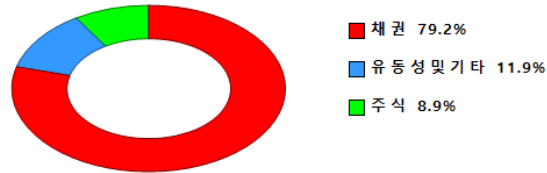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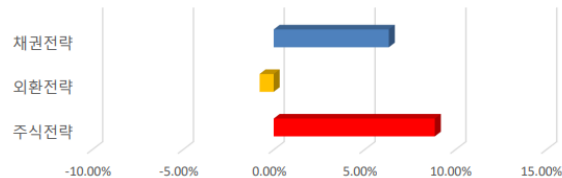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10월말 기준)

<전체>



<알파전략 내 각 투자자산 비중> (2025년 10월말 기준)



(2025년 10월말 기준)

<펀드 듀레이션> (단기채권 전략 포함) 단기 채권전략-종류별 비중 알파 투자전략 비중함께(절대값 환산)



상위 5개 보유 종목 (2025년 10월말 기준)

채권전략	비중 (%)
국고채권03500-2809(23-6)	22.4
국고01250-2603(21-1)	21.7
국고채권03000-2909(24-7)	16.5
국고채권02625-2703(25-1)	10.9
국고02250-2806(25-4)	5.4

알파 전략 포지션 (2025년 10월말 기준)

알파전략 (주식/금리/외환)	비중 (%)
10년국채 F 202512 매수	6.3
KODEX 200 매수	4.4
TIGER 200 매수	4.4
미국달러 F 202511 매도	-0.8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수익률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0.58% (판매 0.24%)
- 클래스 A-E : 총 연 0.46% (판매 0.12%)
- 클래스 C : 총 연 0.9% (판매 0.56%)
- 클래스 C-E : 총 연 0.62% (판매 0.28%)
- 클래스 C-F : 총 연 0.37% (판매 0.03%)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0.79% (판매 0.45%)
- 클래스 S : 총 연 0.46% (판매 0.12%)
- 클래스 S-P2(연금저축) : 총 연 0.41% (판매 0.07%)

(공통사항)

운용 0.3%, 신탁 0.027%, 사무관리0.013%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25% 이내
- 클래스 C, C-E, C-F, C-P, S, S-P2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0월 한 달간 코스피 200 지수는 22.24% 상승한 579.46으로 마감하였으며, 국고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12.9bp 상승한 2.712%, 국고 10년 금리는 전월 대비 11.8bp 상승한 3.058%로,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상승한 1,433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은 월 초반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월 중순 미 연준 의장의 양적긴축 중단 시사 발언,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 따른 주요 업종의 실적 기대감 등이 주식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긴장 완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등도 투자심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금통위 이후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한 달간 금리가 상승 하였습니다. 펀드에서는 주식, 외환, 채권 전략 모두에서 성과를 기록하면서 비교 지수를 상회하는 상승 물을 보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글로벌 주요국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분기 실적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투자심리는 물가와 고용 지표에 따라 결정될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기업 실적과 이에 대한 전망이 시장의 방향 성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